

지난주일(6월19일) 설교 발췌

제목: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왕상 19:1~4, 8~15a)

엘리아가 가장 크게 낙심한 이유는 고립무원, 즉 자기 혼자 남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는 모든 여호와와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고, 모든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바알 앞에 무릎을 꿇었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호와 신앙으로 진실하게 사는 사람이 칠천 명이나 남았다는 말씀을 들은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일단 눈에 보이는 일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깁니다. 어느 정도 교양이 있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게 상황을 받아들이긴 합니다. 원하는 대학 입학에 실패하거나 원하는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 자녀들에게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격과 교양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게 끝장났다고 고함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죽겠다고 고함칠 겁니다. 그래도 방향은 압니다. 모든 걸 잃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면 모든 상황을 견딜 수 있다고 말입니다. 거꾸로 모든 게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모든 게 허무에 떨어진다고 말입니다. 이런 말이 상투적으로 들리시나요?

칼 라너는 『기도의 절실함과 그 축복에 대하여』에서 기도 영성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할 일을 몇 가지로 제시하는데, 그중의 첫 번째가 “잘 견뎌내고, 자신을 내맡겨야 한다는 것”입니다.(23쪽) 그 단락에서 몇 대목만 추려보겠습니다. “절망이 당신한테서 모든 것을 빼앗게 가만히 두십시오. 절망이 겹으로는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 당신은 유한하고 허무한 것만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빼앗기게 될 것이 아무리 위대하고 놀라운 것이어도 마찬가지이고, 또 그것이 당신 자신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 당신한테서 빼앗을 수 있는 것은 결코 하느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칠천 명은 남겨두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살이가 깡그리 무너져도 행복할 수 있는 칠천 가지는 남습니다. 하나님이 남겨두신 칠천 가지를 모르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원하는 십만 가지를 얻어도 행복하지 못할 겁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데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구분해서 볼 줄 아는 눈이 필요하겠지요. 그런 눈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데서 주어집니다. 하나님 안에 있다면 그는 모든 걸, 즉 자기 자신을 잃어도 불행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실제 삶에서 느끼는 고통이 너무 힘들기에 이런 말이 멀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엘리아 같은 사람도 오죽했으면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말했겠습니까. 그 어려움을 저도 잘 압니다. 그 현실과 하나님 신앙 사이의 간격은 제가 해결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외나무다리라는 혼자 건너야 하듯이 여러분 자신이 혼자 뚫고 나가야 합니다.

서울샘터 교회주보

시작일 2008년 12월7일

2022년 6월26일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
세계 교회력 「다」해 31주

✚ **오늘의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눅 9:62)



우리나라 산과 들에 가장 흔한 찔레꽃은 꾸준히 피고 지고를 반복한다.
시들어가는 찔레꽃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다. 미(美)는 곳곳에 있나 보다.

예배 장소: 서울 동직구 여의대방로 53(대방동) 여성플라자 4층 아트컬리지5
주일 공동예배: 4:00~5:00 / 간식 및 친교: 5:00~5:20 / 교우모임: 5:20~6:20
목사: 정용섭 (010-8577-1227, 053-856-1227), 박재진, 이춘우, 김동호
홈페이지: <http://dabia.net/x/churchs>

주 일 공 동 예 배 순 서

개 회 예 전

예배의 부름 ... 목사

“오라 우리가 여호와와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미 4:2a) 오늘 우리는 미가 선지자의 심정으로 예배드리기 위해서 여기 모였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찬송 12장 (다 함께 주를 경배하세) 1, 2, 4절 ... 다 함께

*공동기도 ... 다 함께

배타적 능력으로 세상을 창조하고 다스리시며, 아무도 예측하지 못할 신비로운 방식으로 완성하실 하나님, 우리는 지금 지난 일주일 동안 이어진 모든 일상을 멈추고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진정한 창조주가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드릴 수 없으며, 영광의 존재가 아니라면 찬양을 바칠 수 없고, 권능을 행사하는 존재가 아니라면 기도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구체적으로 알게 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운명에서 일어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희망을 영혼 가득 품고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찬양을 올립니다.

우리 생명의 궁극적 미래이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찬송 「함께 부르는 떼제 찬양」 5장 (찬미하여라) 2회 ... 다 함께



[알리는 말씀]

1. 서울샘터교회는 창립 이후 줄곧 몇몇 교우들이 교회 집기를 직접 보관 및 운반하며 예배준비위원으로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오랫동안 이어져왔던 헌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에 예배준비팀을 새롭게 꾸리는 한편, 교회 앞 점포에 양해를 얻어 교회 집기를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예배준비위원을 수락해주신 교우분들께 감사드리며, 예배 준비 매뉴얼은 문서화하여 교인나눔터에도 올려놓았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지난주일(6월19일) 헌금: 650,000원(주일 130,000원/ 통장 520,000원)
/ 교회 온라인 통장: 카카오뱅크 3333-14-2466417 박수진

* 7월 예배준비

날짜	예배실	예배 인도	성경 봉독	헌금/안내	예배준비
7월3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박수진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오미영 이유선
7월10일	4층 아트컬리지5	정용섭	김기범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정덕
7월17일	4층 아트컬리지5	박재진	이유선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박은숙 김희란
7월24일	4층 아트컬리지5	김동호	오미영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박수진 강윤선
7월31일	4층 아트컬리지5	이춘우	윤혜정	이기령 양혜선 오미영	최선아 박은숙

봉 헌 과 친 교 예 전

신앙고백 사도신경 ... 다 함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헌금 340장 (어지러운 세상 중에) 1, 4절 ... 다 함께

중보기도 ... 목사

주기도 ... 다 함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알림 ... 목사

파 송 예 전

*마침찬송 616장 (주를 경배하리) ... 다 함께

*위탁의 말씀 ... 목사

이제 성령강림 후 셋째 주일의 공동예배가 끝났습니다. 우리나라는 장마철로 접어들었습니다. 각자 주어진 일상으로 흠어지십시오. 전혀 예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미래에 놓였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매 순간을 설렘 가운데서 살도록 최선을 다하십시오.

*축복기도 ... 목사

*후주 ... 반주자

*사죄기도 ... 다 함께

목사: 긍휼과 자비가 한없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절대화하려는 욕망과 고집에 사로잡힐 때가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모든 삶이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생명 충만하게 살아야 했으나 세상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공연한 걱정과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적이 많았습니다.

회중: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목사: 우리는 세상의 요구와 기준에 길들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에 둔감합니다. 영적인 세례를 다시 베푸시어, 용서받고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에 민감하게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함께: 아멘!

*침묵기도 ...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 다 함께

*사죄선포

목사: 예수께서 중풍 병자에게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막 2:5).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로서 저는 주님의 귀한 이 말씀과 지난 2천 년 교회의 예배 전통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아뢴 모든 죄는 용서받았으니 기뻐하시고 이웃의 잘못도 같은 마음으로 용서하십시오.

함께: 아멘!

*영광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에서 ... 다 함께



*평화인사 ... 다 함께

목사: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회중: 또한 목사님과도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Sondra Corbett

출 15:11

말씀예전

설교전기도 ... 다 함께

능력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는 당신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세계 교회력에 따라서 주어진 본문이 이제 읽히고 해석되어 선포됩니다. 그 말씀과 만남으로써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삶의 방향이 더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첫째말씀 열왕기하 2:1~2, 6~14 ... 윤혜정 집사

성서교독 시편 77:11~20 (새로운 예배 시편 번역) ... 다 함께

주하나님 하신일을 어찌내가 잊으리 놀라우신 주님일을 어찌내가 잊으리
-주님께서 행하신일 하나하나 되뇌이고 위대하신 그일들을 가슴깊이 새기리라
우리주님 가시는길 거룩거룩 하시도다 주님처럼 크신존재 그어디에 또계실까
-우리주님 놀라운일 얼마든지 행하시고 우리주님 크신능력 온누리에 널리있네
하나님의 모든백성 아람후손 요셉후손 주님팔을 펼치시어 속량하여 주셨다네
-주님이여 저바다와 바닷속의 깊은물도 우리주님 뵈옵고는 두려워서 떨었다네
온천지에 비뿌리고 천둥소리 하늘진동 주님화살 사방으로 비오듯이 날립니다
-주하나님 천둥소리 회리바람 안에있고 빠른번개 번쩍번쩍 온세상을 비추이니
-넓은대지 온갖것들 두려워서 떨었다네
바다에도 대해에도 주님의길 있사오나 우리주님 발자취는 그누구도 모른다네
-모세아론 손을빌려 사랑하는 백성들을 주께서는 양떼처럼 인도하여 내셨다네

둘째말씀 갈라디아서 5:1, 13~25 ... 윤혜정 집사

*셋째말씀 누가복음 9:57~62 ... 윤혜정 집사

*응답찬송 『한국교회와 리마 예식서』의 '알렐루야' ... 다 함께

설교 하나님 나라의 미래 지향성 ... 김동호 목사

설교후 기도 ... 설교자

찬송 346장 (주 예수 우리 구하려) ... 다 함께